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상장 저축은행 국제회계기준(IFRS) 적용 유예

- 금융당국은 상장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회계기준(IFRS) 적용을 5년간 유예할 예정임.
 - 금융위는 상장 저축은행의 IFRS 적용을 오는 7월 1일에서 2016년 7월1일로 변경하는 ‘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’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임.
 - 5년 동안 저축은행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률 수준을 높여 저축은행에 요구되는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 수준을 IFRS 적용 시 반영되는 평균 경험손실률과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할 계획임.
-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이 처한 경영환경과 감독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는 7월 IFRS 적용이 저축은행에 대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함.
 - PF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은 IFRS를 적용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커져 국제결제은행(BIS)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에 따른 경영개선 권고를 받을 수 있음.
 - IFRS는 PF대출 담보를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부동산 경기 활황 시기인 2007~2008년 기준으로 설정된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가중될 것임.
 - 자산관리공사(KAMCO)에 매각한 PF대출도 종전까지는 대손충당금 3년 분할적립이 가능하였으나 IFRS가 적용되면 일시적립만 허용됨.
 - 비상장 저축은행도 상장 저축은행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저축은행에만 높은 수준의 충당금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.
- 일부 전문가들은 상장 저축은행에 대한 IFRS 적용이 5년간 유예됨에 따라 저축은행 부실 정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함.
 - 일부 업종의 경우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IFRS 적용기준을 일부 조정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, 적용 자체를 유예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IFRS 적용 시 재무제표가 악화될 수 있는 타 업종의 반발이 예상됨.

(저축은행 IFRS 적용 5년 유예 등, 한국경제 등, 5/24)